

1997년 3월 31일 월요일

□ 무각출 노령 연금법을 분석한다

노후복지의 보증수표

박 왕 호

<연꽃마을 편집국 차장>

이번 전국노인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노년운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노인대회 노인사회 최대 현안인 무각출 노령연금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노인 사회의 강한 불만과 불신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과 함께 '노인 복지증진 및 노년성장'은 노인 스스로 나서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에 노인사회 전체가 인식을 같이하고 행동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시말해 국민소득 1만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OECD 가입 등 국가재건과 경제부흥을 일궈낸 장본인이면서 가난과 질병, 파멸과 천대속에서 고통스런 노후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들의 처지와 이를 본체만체 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동시에 터져 나오게 된 것이며, 이를 극복하고 노인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4백30만 노인사회가 하나로 결집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매우 열악한 노인복지수준을 감안할 때 앞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사회의 노년투쟁은 더욱 활기를 띠고 전개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노인사회가 노년운동에 있어서 넘어야 할 한계들도 아직은 많다. 우선 노인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노년운동의 구심체가 아직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흩어져 있는 역량과 세력을 결집시켜 노인권익확보를 위해 일로매진할 수 있는 조직체의 구성이 시급하다. 노년운동 조직의 구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노인사회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노인사회를 역동적이고 활기찬 세대로 탈바꿈시켜 노년운동으로 참여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으로 노년운동은 노인세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애 의한 물질적 풍요가 21세기를 눈앞에 둔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보장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경제적 풍요'에 비해 최소한의

안에 있는 노인들은 대부분 가난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4명 가운데 1명(26.8%)은 월 10만원도 못되는 소득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지경에 있으며, 절반 가까이(44.5



▲지난 10일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3천5백여 노인들이 무각출노령연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복지 위한 노인권익운동 활기

대만을 위한 세대이기주의적 운동이 아님을 사회에 인식시켜 국민의 동의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젊음을 바쳐 조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노년이 되어서는 안심하고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사회, 노인세대도 소외되지 않고 후세들과 더불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코자 하는 국민 모두를 위한 활동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는 지난 30여년 동안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결과로 국민소득 1만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선진국에도 모인줄만 알았던 OECD에도 가입, 어깨를 나란히 하는 등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풍요', 즉 사회 복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삶 자체를 헌신해 국가재건과 경제부흥을 이룩했고 이제는 은퇴하여 노후를 풍요롭게 살아가야 할 노인세대의 삶은 결코 풍요롭지 못하다. 국가가 '선경제성장 후복합' 또는 '선가정보호 후복지'라는 논리야래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가정과 노인 스스로에게 전가하면서 국가, 사회적 노력을 게을리 해온 까닭이다.

노인들은 가난하고 배고프다. 노인빈곤문제, 이것이 이 시대 노인들의 가장 큰 아픔이자 고민거리이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가 됐건, 자식이 고금 외제차를 타고 호화저택에 살든 그

%)는 20만원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 다시말해 65세이상 노인인구(2백65만7천명) 가운데 26만여명이 월 10만원 이하의 소득을, 그리고 1백18만여명의 노인들이 월 20만원도 안되는 수입으로 살고 있다.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도 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가 20만6천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 가까이 가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체노인의 54.9%가 자신의 현재 경제상태를 '매우' 또는 '약간'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점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 노인들의 절

무각출 노령연금법안 비교표

명칭	전국노인대회안	신한국당안	국민회의안
연금지급	무각출 노령연금법안	노인복지보전법 개정안	무각출 노령연금법안
인원수	약 1백57만명 (65세이상 노인의 55%)	약 42만명 (협의과정에서 추정됨) ※도시근로자 4인가구	약 1백15만명 대상 (65세이상 노인의 수취임)
노령수당 지급여부	노령수당 1천3백원 생계보조수당이 최저생계비 100% 수준까지 보장될 때까지 존속	노령수당 1천3백원 폐지 경로연금으로 전환	노령수당 1천3백원은 계속 지급
소요예산	약 7천7백억원/년	대통령령 위임 (현재 약 7백억원/년 협의과정 추정 수취임)	약 5천9백억원/년
지급액	1인당 GNP의 6% 정도 (약 4만3천원/월)	시행령 위임	1인당 월 5만원

무각출 노령연금제도란?

연금제도의 기본 목적의 하나는 모든 국민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제도의 운용방식을 사회보험의 적립방식으로 할 때는 제도가입자의 부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정(法定)의 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금권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역시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제도시행 당시(1988년)에 60세이상이었던 국민, 즉 기존노년계층은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없다. 5년이상 15년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가입자(제도발족시 45~55세)에게는 강제 연금방식의 경과조치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존노인(1988년 당시 60세이상)을 위한 무각출노령연금제도(non-contributory pension system)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연금간의 형평을 위해 필요하다.

반정도가 최저생계비수준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셈이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생계비지원을 받은 노인은 8만8천1백85명으로 전체노인인구의 3.3%(1995)에 불과하다. 노인들의 소득보장책의 일환으로 월 3만 1천원에서 5만원을 지급하는 노령수당을 받는 노인 역시 26만5천명(97년)에 불과해 수혜자는 전체노인인구중 10%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노인의 빈곤화 및 최저생계유지라는 맥락에서 '무각출 노령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전국노인복지협의회를 비롯해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국회노인복지연구회 등 국내 2백여개 노인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무각출 노령연금법 제정추진 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는 지난 5일 국회에 '무각출 노령연금법(안)'입법청원하고 10일 오후 2시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전국 3천5백여 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각출 노령연금법 제정추진 전국노인대회'(공동 대회장 김용성 전국노인복지 협의회장, 박재건 한국노인문제연구소장, 김병태 국회노인복지연구회장)를 개최, '무각출 노령연금법'의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무각출 노령연금제도와 관련해 국회에 노인단체안, 신한국당안, 국민회의안 등 3개 법안이 상정돼 지난 13일 하루동안 국회보건복지위(위원장 신기하)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다음회기로 연기된 상태에 있다. (전국노인대회안, 신한국당안, 국민회의안 주요내용 비교-표참조)

현재 공동위는 국민회의측으로 부터 자신들이 내놓은 노령연금법안을 철회하고 노인단체안을 대폭 수용, 지지할 수 있다는 방침을 통보받은 상태이어서 무각출 노령연금법의 제정여부는 여당의 의지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수급대상자 범위, 연금액 수준, 노령수당과의 관계, 재정조달방안 등 핵심내용에 있어서 노인단체안과 신한국당안의 주장이 서로 달라 귀추가 주목된다.

강단시론

현 재 경

<문리대 물리학과>



해외여행을 하려면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절이 있었다. 70년대의 일이다. 여행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등에 관한 간단한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갈때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짜증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당시의 국내의 사정에 비추어 볼때 그런대로 필요한 과정이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그때 어느 젊은 강사의 다음과 같은 얘기가 기억에 남아 있다. 외국에 나가 우리나라를 소개할 기회가 생기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반만년의 역사, 아름다운 강산, 석굴암과 첨성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 할 수 있는 한글 등등 여러가지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가졌지만,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우리 민족의 저력'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민족의 저력"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 당시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을 염두에 두

판을 받으면서도 개척치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어느 경우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굴레가 행여 대통령에게 누를 끼칠까 두렵고 조심스러운 것이지만, 역량을 인정받아 일단 부름을 받고 대통령을 도울 때에는 정정 당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두 전직 대통령이 옥살이를 하고 있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우겠다고 개혁을 외치던 문민 정부마저 국민의 신임을 잃어 구실없이 흔들리고 있다. 몇천만원의 먹값이고, 몇억의 사파상자는 인사치레, 몇십억의 정치자금, 몇천억원의 리베이트 설, 비자금, 금융특혜등등,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럽고 마음이 아프다.

다시 한번 불굴의 정신을

오늘의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 나라인가. 36년간의 일제 식민통치하에서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 변절하는 가운데서도 면면히 흐르는 민족 의식 속에서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굳건히 지켜왔기에 광복을 맞이할

우리 민족의 저력

고 한 것이겠지만, "그래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지"하고 자꾸 초라하게만 느껴지던 그 시절의 심기를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게 됐다.

처음 한보 사태가 터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해외여행 중에 현지 교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나는 기업인이나 그 어떤 사람으로 부터도 돈을 받지 않았으며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장면을 TV 뉴스 화면으로 보면서 어쩌다 우리 대통령이 교민들에게 그런 자랑을 하고 다니게 되었나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그 후, 공인도 아닌 대통령의 젊은 아들이 공식 정부기구가 아닌 "비선 라인"을 통해 국정을 좌지우지해 왔다는 의혹이 불쑥 불쑥 터지면서 대통령의 '자랑'이 '뒀난 자식'을 둔 애비의 사죄'로 바뀌어 다시 TV에 나오는 것을 보았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위치는 어떤 것인가? 미국의 12대 대통령 테일러 부인은 남편이 선거유세를 할 때 "나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고 했고 당선된 후 임무를 수행할 때도 대통령의 가족이 된 것을 몹시 싫어했다고 한다. 레이건 대통령의 아들은 아버지의 임기 동안 멀리 시골에 내려가 살았다. 못 사람의 시선을 받아야 하고 언행을 조심해야 하며 개인생활의 자유와 행복을 잃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은 법무장관 직을 맡아 형을 훌륭하게 도왔고,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은 일부 여론의 비

수 있었으며, 이데올로기의 처참한 대리전을 치룬 6·25동란의 폐허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불굴의 집념을 키워왔기에 다시 일어나 GNP 만불시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슬아슬한 고비를 많이도 넘겼다.

4·19, 5·16, 12·12, 5·18, 6·29 등 혁명과 변란을 겪을 때마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지상명제를 놓고 쓰러질듯 쓰러질듯 하면서도 결정적인 시기에는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나가는 용감력을 발휘해온 하였다.

요즈음 많은 사람이 이제까지 겪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 만큼 정부를 믿고 열심히 일해 온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새 차원의 발전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징조일 수도 있다. 안일한 생활 자세로는 안되며 최선의 노력을 할 때에 진정한 발전이 있다는 교훈일 수도 있다. 그럴수록 더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할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다시 한번 온 국민의 의식 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불굴의 정신을 집결하여 이 난국을 전하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합의를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저력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에너지와 정보통신의 선정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선경이 사람을 뽑고 키우는 방식입니다.

요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인터넷, 배낭여행, 편의점, 그리고 도서관과 실험실에서 밤을 밝히는 사람들.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하면 역시 011.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미래 - SK Telecom과 에너지·화학의 대표기업 유공이야말로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세계 최초로 CDMA를 상용화하여 우리나라를 통신기술 선진국으로 만들고 국가경제의 동맥인 에너지를 50% 이상 공급하는 사람들. 에너지와 정보통신의 NO.1 기업이 바로 선정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선정그룹에 지원하는데도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완전공개, 상시채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입사원 해외연수, 지역전문가제도, 장기해의 연수프로그램, 미국영명대학원과정 등 선정의 인재양성 또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원인 나라, 그 사람을 키우는 선정

• 선정채용상담실 02)728-0222, 0212
서울특별시 용인로 27가 36-1 선정빌딩 1층
• Internet 채용 Homepage http://www.sk.co.kr/

SUNKYONG
선경그룹